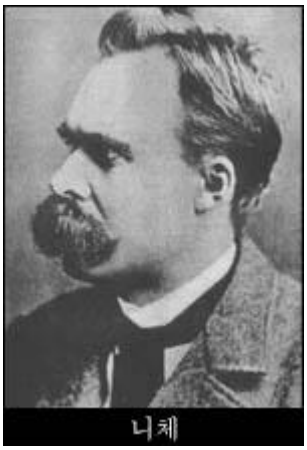
제 9 강 현대 철학 Ⅰ : 니체, 프로이트, 라캉, 푸코

※ **니체** (Friedrich Wilhelm Nietzche, 1844-1900, 독일)
프로이트 (Sigmund Freud, 1856-1939, 오스트리아)
라캉 (Jaques Lacan, 1901-1981, 프랑스)

◆니체의 영원회귀◆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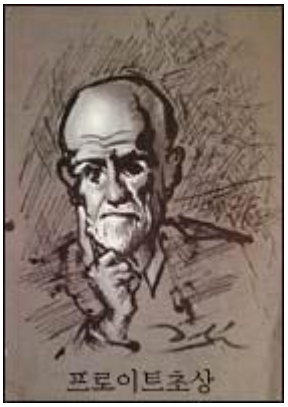
△ 니체의 사상(『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』)


니체

- 비합리주의 : 실존철학의 선구적 역할
- '몸 철학' : 초월적 세계의 배제. 삶 자체에서 가치를 찾고 고양시키려 함. (건강한 인간=적극적인 명령을 누릴 줄 아는 인간)
- 반인간주의 : 인간이 만든 법, 제도, 종교 등이 인간을 왜곡시키고 처분한다. 인간이 인간을 부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투쟁하려는 의지.

△ 주요 개념

- '**디오니소스적 도취**' :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떨림에 몰입. (『비극의 탄생』)


프로이트초상

- '**춤추는 신**'에 대한 예찬 : 생성의 환희.
- '**영원회귀**'라는 방법론의 제시 : 주어진 삶에의 적극적 긍정. (→메를로-퐁티, 푸코, 들뢰즈에 영향)

◆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◆

△ 프로이트 연구의 계기

- 1968 년, 프랑스 5 월 혁명이후의 사회적 분위기 : 주체의식의 부각. 구조주의의 탈피.
- 충족될 수 없는, '결핍의 욕망'을 기본 개념으로 한 정신분석학의 재해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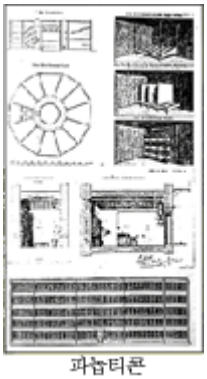
→ 푸코와 들뢰즈(『앙티 오이디푸스』, 가타리 공저) 등 현대 철학자들의 비판.
⇒ '욕망의 시대'의 도래. 포스트구조주의. 혁명이 아닌,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기 위해 프로이트가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게 된다.

현대철학 Ⅱ : 푸코

※ **푸코**(Michel Foucault, 1926-1984, 프랑스)

◈푸코의 규율하는 권력과 몸◈

△ 푸코의 사상


파놉티콘

-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.
- 현대 사회에서의 '주체적 삶'을 비판.
(모더니즘의 주도적인 기획 중 하나)
- 현대는 '**대감호 시대**'. 미세한 권력관계의 총체. (파놉티콘(Panopticon)[1])
- **담론(discours)** : 과학도 잡담도 아닌, 참과 거짓을 만들어 내는 개념. (ex. 프로이트의 '오이디푸스 콤플렉스'가 끼친 사회적 영향)
⇒ 전기 : 고고학 / 후기 : 계보학

※ 참고도서('권력'에 관한 푸코의 사상) :
『감시와 처벌』, 『성의 역사』

※ 추천도서 : 『시칠리아의 암소』, 김현, 문학과 지성사

『들뢰즈의 철학』, 서동욱, 민음사

첨부파일

---

1) ‘보이지 않는 시건’을 권력화한 최초의 장치로서의 원형감옥. 이 장치의 핵심은 죄수의 방은 밝게 유지하되 중앙의 감시탑은 어둡게 하는, ‘시선의 비대칭’에 있다. 푸코는 이를 ‘권력의 시선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속성’으로 풀어냈다.